



엔텍스 지문인식 '마지 도어록'

# 손잡이 뒷면에 센서... 잡기만 해도 지문인식

일체형 도어록 손잡이를 잡고 몸쪽으로 당기니 잠겼던 문이 열렸다. 손잡이 뒷면 감지센서가 집주인 지문을 인증했기 때문이다. 채 1초도 걸리지 않았다. 국내 중소기업 엔텍스가 울초 세계 최대 전자쇼인 CES에서 선보인 '마지(MAZI) 스마트 도어록'이다. 다른 지문 인증 도어록 제품처럼 손가락을 따로 센서에 대는 단계를 없앴다. 손잡이를 잡기만 하면 지문 인식이 끝나는 '일스텝' 개념 방식이다. 손잡이를 밀면 닫히고 당기면 열려서 일명 '밀당 도어록'으로도 불린다. 조성완 대표는 "직접 개발한 지문 인식 손잡이를 적용해 기존 제품보다 보안성·편의성은 높이며 가격 경쟁력도 크게 낮췄다"고 말했다.



조성완 엔텍스 대표가 경기 군포시 본사에서 '마지(MAZI) 스마트도어록'을 설명하고 있다. 이연하 기자

◆밀고 당기면 열리는 '밀당 도어록' 엔텍스의 마지 스마트도어록은 잠금 해제 방법만 다섯 가지다. 지문 이외에 패턴 인증, 카드 키, 비밀번호 입력, 스마트폰 연동 방식을 모두 제공한다. 지문은 방향 구분없이 360도 어떤 각도에서도 인식이 가능하다. 인식 센서는 손잡이 후면에 있다. 패턴 인증은 스마트폰을 사용하듯이 손가락으로 원하는 모양을 입력하면 된다. 문을 열거나 외출 시 보안모드도 작동할 수 있다. '허수 기능'으로 보안성을 강화했다. 올바른 패턴 입력 전에 틀린 패턴을 섞어 쓸 수 있다. 일체형 설계로 온도 차나 외부 충격으로 생기는 오작동 우려를 크게 줄였다고 회사 측은 강조했다. 영하 50도에서도 정

## 패턴·스마트폰 등 이중 보안 가능 CES 참가... 해외 바이어 '호평' 중국·베트남 등 동남아 공략

상 작동한다. 이중 설계로 내화성을 높였다. 절도 등의 목적으로 외부에서 열을 가해 도어록 온도가 비정상적으로 올라가면 도어록은 열리지 않는다. 반대로 화재 시 안전을 위해 이상 열이 감지되면 잠금이 해제된다. 전자회로는 녹더라도 수동으로 문을 열 수 있다. 설치는 간편해졌다. 현관 문 안쪽에 도어록 몸체(모듈) 두 개를 고정하면 된다. 설치할 때 스

는 고정나사(피스) 수도 크게 줄었다. ◆소비자 대상 첫 브랜드 '마지' 2002년 설립된 엔텍스는 주로 건설사에 주방·욕실용 영상기와 전화기 등을 공급했다. 본격적으로 스마트도어록 시장에 뛰어든 것은 2014년으로 후발주자다. 2년여간 공을 들여 지난해 가정용 도어록 브랜드 '마지'를 선보였다. 올해는 월 1000~3000대 수준의 생산능력을 갖추고 소비자 직접 판매(B2C) 대상 첫 제품을 내놓았다. 올 상반기 CES에 이어 참가한 베트남 하노이 전시회와 중국 선전 전시회에서 국내외 바이어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최근 중국 업체와 총판 계약을 맺었다.

◆이달의 으뜸중기 제품은 이메일(jkim@hankyung.com)로 신청받습니다. 한국경제신문 홈페이지(event.hankyung.com)를 참조하세요. ◆이달(8월)에 선정된 으뜸중기 제품 △태양산업조명-LED완전방수등 (032)683-4501 △엔텍스-원스텝 오픈 마지(MAZI) 도어록 070-8285-4500 △디프로매트-프리미엄 금고 (051)831-4400 △아람휴비스-베베스캔 (031)732-6320

태국 베트남 등 동남아 국가에도 테스트 제품을 납품했다. 조 대표는 "비록 후발주자지만 기존 시장의 틈새를 파고들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확신한다"며 "기존 제품 최고 사양보다 더 개선된 제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하면 소비자의 선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엔텍스는 다른 생체 인증 기술을 적용한 개념 장치도 개발 중이다. 이명열 엔텍스 도어록사업본부장은 "지문이 선행하지 않거나 땀이 많은 사람까지 고려한 생체인증 도어록 신제품을 연구하고 있다"며 "국내 스마트도어록 시장 뿐 아니라 글로벌 가정용 보안장치를 대표하는 강소기업으로 성장해 나가고 싶다"고 덧붙였다. 군포=이연하 기자 minari@hankyung.com

# "11년 만에 美법인 흑자 전환 올해 해외 매출, 국내 넘어설 것"

임태관 오스템임플란트 대표



"미국법인은 설립 11년 만에 올해 처음 흑자를 기록할 겁니다. 이를 계기로 전체 해외 법인의 경영수지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임태관 오스템임플란트 대표(사진)는 지난 5일 서울 가산동 사무실에서 "10년 이상 공들인 해외시장 공략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다"며 "올해는 해외 매출이 국내 매출을 넘어설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익폭도 늘어난 그동안 적자였던 해외법인들의 경영수지가 이르면 올해, 늦어도 내년에는 흑자로 전환할 것으로 전망했다. 성장사인 오스템임플란트는 국내 1위 치과 임플란트업체다. 국내 시장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한다. 중국 동남아 등 아시아 시장에서도 점유율 1위다. 하지만 세계 치과 임플란트 시장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미국 유럽 등 주요 시장에선 존재감이 미약했다. 스트라우만, 다니히, 덴츠플라이 등 해외 업체에 밀려 한 자릿수 점유율을 벗어나지 못했다. 해외에 진출한 지 10년이 넘었지만 아직 적자를 내는 법인이 흑자 법인보다 더 많다. 지난해 22개 해외 법인 중 흑자를 기록한 곳은 6곳뿐이었다. 임 대표는 "해외시장은 아직 거두들이기보다 씨앗을 뿌리는 단계"라며 "올해부터는 현지시장 개척에 들어간 투자비용에 가려있던 성과들이 서서히 드러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동안 치과 임플란트 기술을 할 수 있도록 현지 치과의사를 교육하고 영업망 확대에 들인 노력이 수익으로 결실을 볼 것이라 얘기다. 올해 1분기 흑자 전환 해외법인은 여덟 개로 늘었다. 매출 규모가 큰 미국법인이 좋은 실적을 내고 있다. 올 1분기 1억3000만원 흑자

를 냈고 2분기에도 흑자가 예상된다고 임 대표는 설명했다. 그 배경에는 필라델피아 공장에서 생산되는 오스템임플란트 프리미엄 브랜드인 하이오센의 매출 확대가 있다. 올해부터 중남미뿐만 아니라 아시아 수출도 시작한다. 임 대표는 "아시아에서도 하이오센의 반응이 좋다"며 "이 덕분에 미국법인은 설립 이후 처음으로 올해 흑자를 기록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빠른 속도로 판매량이 늘고 있는 최우용 의자 유닛체어도 해외법인 실적 개선에 한 몫하고 있다. 해외법인에 94대를 판매해 지난해 전체 실적(약 700대)을 이미 넘어섰다. 올해 목표 판매량은 2000대 이상이다. 그는 "유닛체어와 치과 임플란트를 묶어 판매하면 마케팅에 더 효율적"이라고 설명했다. 오스템임플란트는 외형 성장에도 지속적으로 나서고 있다. 올해 중국 톈진, 칠레, 우크라이나에 법인을 세웠고 하반기에는 우즈베키스탄과 뉴질랜드, 내년에는 콜롬비아에 법인을 설립한다. 임 대표는 "안정적으로 성장하는 국내 실적에 더해 해외법인 실적까지 개선되고 있다"며 "올해 매출은 4000억원을 넘어서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임관 기자 rkim@hankyung.com

## '경연남' 중소기업에 서울시, 500억 펀드

서울시는 경영 악화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연말까지 500억원을 낮은 금리로 빌려준다고 6일 밝혔다. 시는 올해 긴급자영업자금 600억원과 시설자금 500억원을 편성했다. 그러나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90% 이상이 소진됨에 따라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500억원을 추가로 확보했다. 이번 추가 지원은 매장 구입(분양)에 쓸 수 있는 시설자금 200억원과 매출 급감·임차료 급상승 등의 이유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 지원하는 긴급 자영업자금 300억원이다. 시설자금 200억원은 올해 하반기 가산동과 문정동 일대 지식산업센터(옛 아파트형 공장) 신규 입주자를 앞두고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돼 마련했다고 시는 밝혔다. 서울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신청은 서울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와 고객센터(1577-6199)로 문의하면 된다. 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

## 싱가포르에 중소기업 제품 전용 전시판매장

중진공, 미국·중국 이어 세번째 중소기업진흥공단 이 지난 5일 싱가포르에 중소·중견기업 제품 전용 전시판매장을 열었다고 6일 밝혔다. 싱가포르 주총 이스트에 들어선 이 전시장은 미국 로스앤젤레스, 중국 선양에 이은 중진공의 세 번째 해외 전시장이다. 중진공은 2013년부터 주요 수출 국가에 전시판매장을 설치, 중소기업의 현지 판매 및 유통망 진출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 전시장은 싱가포르가 한류의 영향으로 한국에 우호적이라는 이점을 살려 '한류문화 복합 공간'으로 꾸며졌다. 한류스타 캐릭터 상품을 갖춰 놓고 한국 드라마 등의 영상 콘텐츠를 방영한다. 한류 식품 시식 코너와 한국 화장품을 사용해 전문가가 메이크업



임태관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오른쪽)이 지난 5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해외 전시판매장 개소식에 참석해 중소·중견기업 제품을 둘러보고 있다. 장영재 기자

을 해주는 공간도 있다. 중진공은 온라인에서 쇼핑한 뒤 오프라인 매장에서 받는 것을 선호하는 싱가포르 소비자의 특성을 겨냥해 온라인 쿠폰 할인 판촉전, 온라인 구매 전용 계산대 운영 등 마케팅 행사를 하고 있다. 임태관 중진공 이사장은 "이번 싱가포르 판매장은 현지 소비자 판매(B2C)를 통해 소비자 반응을 테스트하는 동시에 바이어 연계 판매(B2B)로 동남아 유통망에 진출하는 거점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아란 기자 archo@hankyung.com

## 복지부, 자살 유가족 상담치료 돕는다

유가족 4명 중 3명이 우울증 1인당 최대 300만원 지원 자살로 가족을 잃은 사람의 43%가 자살 충동을 느낀 적이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자살자의 직계가족과 배우자 등 유가족에게 1인당 140만원, 최대 300만원의 심리상담 및 정신과 치료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살 유가족지원체계 확립을 위한 기초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매년 평균 1만3000여 명이 자살해 8만 명 이상의 자살 유가족이 생기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이들이 겪는 어려움

의 구체적인 실태 파악은 부족하다. 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가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이용 중인 자살 유가족 72명을 조사한 결과, 우울·의욕저하(75%), 불면(69%), 불안(65%), 분노(64%), 집중력기억력 저하(60%) 등 정신적 고통을 경험한 비율이 높았다. 이들 중 11%는 정신건강 문제로 입원 치료를 받기도 했다. 조사 대상 72명 중 31명(43%)은 '진지하게 자살을 생각했다'고 답했고 이 중 9명은 자살 위험이 큰 것으로 분류됐다. 자살을 생각한 사람 중 21명은 자살을 시도한 경험이 있었고, 16명은 자살을 계획한 적이 있었다. 전예진 기자 ace@hankyung.com

### 기업경영을 위한 선진 노사리더 양성과정

한국경제신문사가 제안하는 노사상생하는 국외연수 프로그램

노사가 화합하지 못하는 기업은 지속적으로 좋은 성과를 낼 수 없는 것이 기업경영의 현실입니다. 지난 9년간 고용노동부의 노사관계 전문가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21세기 노사관계 전문가 과정」을 토대로 2018년을 준비하기 위한 선진노사문화 습득하고 경영과제 개선을 위한 「선진노사 리더 육성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교육 구성**  
국내교육: 28시간 (해주 금요일 이문 및 시계 교육)  
국외연수: 18시간 (4개 기업(중) 방문 브리핑 및 토론회 진행)

**프로그램 기대 효과**  
1) 네트워크 활동을 통한 다양한 강사진과 교육생들의 공감대 형성  
2) 노사가 함께 상대 측의 의견을 공유하고,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기회 제공  
3) 2017년 주요 노사이슈를 점검하고, 2018 새로운 노사 트렌드를 공유할 수 있는 기회 제공

**주요 강사진**  
최영우 교수(고용노동연구원 교수) | 허각래 교수(단국대학교 노동법학 교수)  
권혁 교수(부산대학교 법학대학원 교수) | 권영철 위원(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최종석 부소장(한국경제신문 좋은일터연구소) 및 전문교수

**프로그램 안내**  
일정: 국내교육 09월 15일(금) ~ 12월 01일(금) 14:00 ~ 18:00  
국외교육 11월 03일(금) ~ 11월 10일(금) 6박 8일 미국 샌프란시스코  
대상: 인사 노무 담당 팀 리더 / 노조 측 간부 (노사가 함께 신청 시 우대)  
비용: 430만원(1인당, VAT 별도)  
접수: 9월 8일(금)까지 신청서 접수 후 결제까지 완료(선착순 마감)  
장소: 한국경제신문사 3층 한강아카데미 2층 소회의실(4번 출구에서 50미터)  
문의: T. 02)360-4886 E. kjr@hankyung.com

한국경제신문

### 2017 경영 빅데이터 분석사 자격시험안내

Big data Analytics for Business

■ 경영 빅데이터 분석사(Big data Analytics for Business)는 데이터 이해에 대한 기본 지식을 바탕으로 경영과 관련한 데이터를 분석/활용하여 가치를 창출하고 업무 수행에 활용하는 실무자를 말합니다.

■ 2017년도 시험일정

회차	접수기간	시험일	합격자발표
제1회	07.17(월) ~ 08.25(금)	09.09(토)	09.18(월)

출시지역: 2급: 제철, 앞바다, 누구나 가능  
1급: 경영 빅데이터 분석사 2급 취득자에 한함

출시료: 1 2급: 5만원, 1급: 7만원  
출시지역: 서울, 부산, 대구, 대전, 광주 등  
원서접수: 온라인 접수 www.bigtest.or.kr  
접수문의: 시험 운영 사무국 T.02-1944-1097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영 빅데이터 분석사 운영 사무국 홈페이지 참조  
www.bigtest.or.kr

경영 빅데이터 분석사  
Big Data Analytics for Business

### 한국경제신문 부모교육인성지도사

자격증 취득과정 12명

교육부터 자격시험까지 온라인으로 해결!  
강사 트레이닝 프로그램 무료 지원  
부모공감/즐거움학교 강사활동 지원!

**교육대상**  
- 부모교육에 관심이 많은 강사  
- 어린이집 원장 및 교사  
- 교육(양육)관련 종사자 및 관련 자격증 취득자  
\*교육문의: 1833-9710  
\*인턴십 장학금 | 부모교육인성지도사생 추천료 제공

강사 트레이닝 & 스터디 활동 무료 지원

강사 트레이닝 무료 | 강사 스터디 모음

부모교육인성지도사 홈페이지: www.hkbumo.com